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7월 19일(금)

(음력 6월 17일)

Пятница

12 июля 2019г.

№ 28(11684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7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짜브리>영화관에서 사할린주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이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실내는 만석에 서 있는 사람도 꽤 많았다. 주지사 대행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교통, 도로건설, 주택수리, 보건 분야 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은 시민들은 여러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올 가을, 주지사 선거 외 5 개 지방의원 선거 펼쳐져

단일선거일이 9월 8일로 정해졌다. 이날 사할린에서는 새 주지사를 선출하고 또한 지방 3곳(노글리키, 네헬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의회 의원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노글리키에서는 의원 16명을 선출하는 가운데 10명은 당소속 비례투표로, 3개 선거구에서 6명을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네헬스크의회에서 1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이중 11명은 비례투표로, 4명은 2개 선거구에서 출마한 후보들을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현재 노글리키와 네헬스크에서는 이미 정당소속 의원후보 명단이 작성되었다.

노글리키에는 당소속 후보로는 73명, 네헬스크에는 84명이 나섰다.

사할린주 중앙도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

에는 의원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수치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비례투표가 없다. 모든 후보들이 직접 등록된 선거구에서 경쟁하게 된다.

7월 17일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 의원후보로 52명이 후보로 나선다고 밝혔는데 후보등록기간은 7월 26일까지다.

사실 시장 직접선거가 취소된 후부터 지방의회의 위치가 높아졌다. 지방의회의원들이 시장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원들에게는 주지사 후보 지지권이 주어져 있다.

또한 올해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제2선거구와 제3선거구), 홀스크(제4선거구와 제5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사할린 동포 특별법 공청회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외교부, 적극적으로 러시아 설득해야"

"일본이 돈 한 톨 안 내면 우리도 못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본이 하지 않아도 우리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

오일환 아르고인문사회연구소 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사할린 한인 국내 유족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할린 한인 피해자들은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와 함께 1965년 한일협정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면서 "그동안 이들에 대해 정부가 외면해 왔기 때문에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문제에 대한 관심이 떠올랐지만 사할린 동포에 관한 내용은 잘 찾아볼 수 없다.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강제동원 돼 '사할린'(현재 러

시아 영토)에서 머물기 시작했다. 이들의 숫자는 4만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이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현지에서 거주 중이다. 현재까지 한국에 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273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본인 및 배우자만 영주귀국 대상이고, 직계 가족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많은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가족들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과 역행하고 있는 제도다.

입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전철철, 김동철, 윤상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문제에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의무가 정부에 부과되고,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 정착을 위해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다.

(7면에 계속)

단신

2019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예산 증가액은 8억6700만 루블리

지난 17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두마에서 예산 및 세금위원회 회의를 한 가운데 2019년 시예산 수정안을 심의했다. 올해 예산 수령액은 8억6674만4600루블리로 증가된다. 이 금액은 자체 추가수익이 2억800만 루블리와 주예산에서 지급하는 국고자금 6억5874만4600루블리를 합친 금액이다.

1억8560만 루블리는 교통 및 도로산업 분야, 1억7000만 루블리는 행정부처 기능에, 1억4800만 루블리는 지방예산 균형유지에 따른 지원정책 보조금으로 지출된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고체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1억 루블리가 배당된다.

공공주택사업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1억 루블리, 5000만루블리는 지방자치체 영향력 평가결과의 장려금으로 배당된다.

2019년 총수익이 32,912,786,300루블리에 도달해야 하는 마당에 예산의 적자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할린국립대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협력 협정체결

지난 16일 사할린국립대학교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가 과학적 연구와 보고에 대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사할린을 방문한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브 학장과 사할린국립대 니콜라이 바르민 총장 권한 대행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세르게이 학장은 사할린은 지리적, 과학적, 환경적 특성에 힘입어 과학적 잠재력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 사할린과학의 현재와 미래는 과학자들과 주정부와 각 교육기관이 역량을 모으는데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과제는 사할린국립대가 운영하는 원격 지구탐사연구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연구소와의 공동연구와 세계적 온난화시대에 북극 바닷길의 극동지역에 빙하 표층형성에 대한 예보를 실시, 극동지역의 수질상태에 대한 실제적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다.

주내 구역 모두 본격 난방시즌 준비 중

지난 1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 정부 블라지미르 시도렌코 부수상의 주재로 난방시즌 준비본부 회의가 소집되었다.

복합공동주택의 안전확보에 따른 조치 실시로 235 개 대상에 16억 루블리가 배당된다.

7월 15일 현재 보일러 설비 34 %, 중앙 난방장치 50 %, 하수 설비 54 %, 예비 디젤 발전기 43 %, 난방망 수리작업은 33 %, 상수도망 41%, 하수도 설비- 35 % 등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

현재 모든 구역들에 난방시즌을 위한 연료공급 작업중이다.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아버지와 아들이 러시아를 횡단하는 소설을 쓰려고 해요

김남중 동화작가와의 인터뷰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의 프로그램으로 김남중 동화 작가가 2개월간 사할린에 머물게 되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동화작가를 소개하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 작가님께서 언제부터 동화 작가가 되고 싶으셨나요?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간 이유도 그때문이지요?

-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하긴 했지만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는 탐험가가 되고 싶었죠. 국문과에 간 것도 독서를 좋아해서였는데 작품을 쓰기 시작한 건 군대에 다녀와서부터였습니다.

- 지금까지 50여권의 책을 쓰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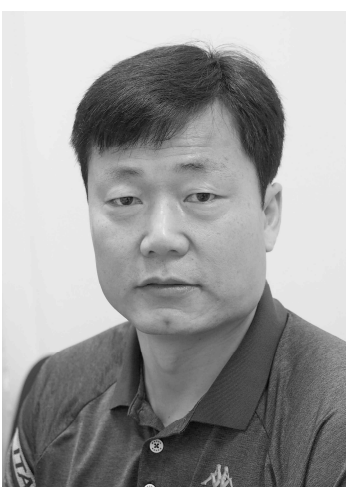
- 동화와 청소년 소설을 썼는데 크게 나눠 자연과 역사, 보통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 작품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인간과 갈등하는 자연, 역사를 만들어가는 보통 사람들의 거대한 흐름이 주제입니다. 요즘에는 좁은 한반도에 갇혀 있지 않고 시선을 더 넓은 대륙과 대양으로 돌리는 모험에 대한 작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에도 왔고요.

- 아드님 두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빠의 어느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지요?

- 아쉽게도 제 아이들은 다른 작가를 더 좋아합니다. 여러 작품에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줬는데 좀 섭섭해요. 아이들에게 제 작품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불량한 자전거 여행> (2009년 출간) -부모의 이혼 결정에 화가 나 집을 뛰쳐나온 호진이의 이야기 『불량한 자전거 여행』은 무너져 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호진이의 모습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함께 달리며 땀 흘리는 사이 조금씩 마음과 마음 사이가 가까워지는 호진이네 가족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라는 책을 선택합니다.

-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데 1980년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겠지만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 저는 그 때 광주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직접 경험하진 못했고 제 아내가 광주 시내에 살며 겪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릴 적 가까운 기차역에서 군용폭탄 30여 톤을 실은 열차가 폭발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근처에 주둔하던 공수부대가 출동해 집 잃은 사람들에게 천막집을 지어주는 등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그 공수부대가 삼 년 뒤 광주에 출동해



동화작가 김남중

1972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광주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4년에 소년소설 『기차길 옆 동네』로 제8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창작 부문 대상을 받았다. 동화집 『자존심』으로 2006년 ‘올해의 예술상’을, 2011년에는 『바람처럼 달렸다』로 제1회 창원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동안 지은 책으로 동화집 『동화 없는 동화책』 『공포의 맛』, 장편동화 『불량한 자전거 여행1,2』 『싸움의 달인』 『나는 바람이다 1~9』, 청소년소설 『보손 게임단』 『해방자들』 등이 있다.

서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죠. <기차길 옆 동네>라는 작품에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 해외여행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작품을 쓰기 위해 취재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3년 전에는 북극에 다녀왔고 2년 전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작년에는 두 달간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걷기 여행을 했습니다. 모두 작품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 사할린 창작 레지던스를 지원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할린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나요?

-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러시아를 횡단하는 소설을 쓰려고 해요. 사할린 역사에 새겨진 우리 동포들의 발자국도 궁금하고요. 사할린은 동포분들이 너

무 잘 대해주시고, 작업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먼저 다녀간 작가들이 자랑을 많이 했어요. 사할린에 있는 동안에는 야생동물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 작가님께서 꿈을 아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꿈에 대한 책도 쓰셨다고 들었어요.

- 우리 조상님이 웅녀 할머니여서 그럴까요? 제가 사할린에 간 다니가 한국 아이들이 꼭 꿈을 보고 오라고 부탁했어요. 지리산에 사는 반달곰 이야기를 쓴 <뽕벼라 곰>,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에 사는 <주먹곰>, 50년 후 지구의 마지막 북극곰 이야기를 담은 <살아있었니>를 썼는데 사할린에 와서는 북극곰 이야기를 한 권 더 쓰고 있어요. 가을에 여러 학교의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사할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 동화작가로서 아이들을 자주 만나시나 봐요?

- 주로 여름과 겨울에 글을 쓰고, 봄과 가을에는 여러 학교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빠져서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작가가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재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일도 중요해요.

-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할린에 대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열흘이 번개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림종환 회장님의 초대로 아나와 해변에서 ‘어부의 날’ 행사와 멋진 파티에도 참석했고 배워토리야 사장님 초대로 네벨스크 박물관에 가서 새고려신문 70주년 특별전시회도 관람했어요. 네벨스크에서는 운 좋게 바다사자(강치)를 봤는데 오는 길에 야생 여우까지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사할린의 여름은 정말 아름답고 쾌적하고 조용해서 작가에게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곳을 가보고 야생곰도 꼭 보고 싶습니다. 물론 멀리서요.

-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할린에서 하고 싶으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 저 모

주 일반과학 도서관, <사할린의 극장> 사진전 열려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 향토부에서 “사할린의 극장”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사할린의 첫 전문 극장의 사진들을 통해 건축에서부터 현대적인 주 드라마극장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볼 수 있다.

사진전에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이 소장한 사진들의 복사본과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의 도서들 - '극장: 역사와 얼굴'(체호브센터 출판)', '대형 무대로 가는 머나먼 길: 사할린 극장의 역사개요(아. 크라예브, 이. 쭈펜코와 공저)' -의 사진들이 사용되었다.

전시회는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화문의: 8 (4242) 45-25-37, 45-25-38, 도서관 홍보실에서 전했다.

Фото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ский театр" открылась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Фотовыставка "Сахалинский театр" открылась в отделе краеведения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Посетители экспозици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фотографии перв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театра на Сахалине, по снимкам проследить путь от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 современного состояния областн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Для фотовыставки использованы копии снимков из коллекций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и фотографии из книг фонда СахОУНБ: "Театр: истории и лица" — издания Чехов-центра, а также "Долгая дорога к большой сцене: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театра на Сахалине" авторов А. Краева и И. Цупенковой.

Выставка продлится с 10 июля по 30 сентября.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ам: 8 (4242) 45-25-37, 45-25-38,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библиотеки.

사할린 주, 러시아 고소득 순위 10 위권에 올라

사할린과 쿠릴열도가 러시아 79개 지역보다 주민 소득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러시아 국제정보통신사의 평가조사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이 고소득층 비율로 6위를 차지했다. 고소득 지역 상위 3위는 야말네네츠키 네네츠키, 네네츠키, 추코트카 자치구가 올랐다.

저소득 지역으로 85위를 차지한 투바공화국의 1년간 저소득층은 40,1%였고, 빈곤층은 9,2%로 나타났다. 사할린과 이웃한 하바로브스크 변경은 등급 평가로 16위를 차지했고 프리모리 변경은 35위, 캄차트카 변경은 23위, 마가단주는 4위를 차지했다. 러시아의 수도는 7위를 차지, 모스크바주는 8위, 뒤를 이어 문화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차지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2019년 초반에 사할린 지역은 주택 분양 비율로 18위를 차지했다. 등급 평가자들에 따르면 평균 통계적으로 사할린 가구는 4,3년 만에 일반 아파트 방 2칸짜리를 매입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ТОП-10 регионов с самыми высокими доходами в Росси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лучают больше денег, чем жители 79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Регион занял шест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богатог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по данным за 2018 год, сообщает РИА Рейтинг.

В тройку лидеров с самыми крупными доходами попали Ямало-Ненецкий, Ненецкий и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В самом низу, на 85-м месте списка, находится насел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Тыва. Там за чертой бедности за год оказалось 40,1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ния, крайне бедными признаны 9,2 процента.

Соседний с островами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занял 16-ю строчку рейтинга,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35-ю,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 23-ю, а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 4-е место.

Столица России поместилась на 7-м месте списка,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попала на 8-е место. Сразу за ней

идет культурная столица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Как уже ранее сообщалось, на начало 2019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18-е место в России по доступности жилья. По версии авторов рейтинга,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ахалинская семья сможет накопить на типовую двухкомнатную квартиру за 4,3 года.

러시아 정부, 내년 공휴일 승인

정부 홈페이지 사회전산망 서비스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공휴일을 승인했다.

내년 러시아 국민들은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휴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중 1월 4일과 5일은 주말인 관계로 5월 4일과 5일을 대체휴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다가 '승리의 날'을 맞아 휴일은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더 연장된다.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국수호자의 날', 3월 7일부터 9일까지 '국제 여성의 날',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의 날'로 3일간의 휴일이 계획되었다.

11월 4일 '인민단결의 날'로 주중에 하루가 연장 휴일이 된다고 “로시스카야 가제타” 신문이 보도했다.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твердило календарь выходных дней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утвердило календарь выходных дней в 2020 году, сообщается на страницах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россияне будут отдыхать с 1 по 8 января. Поскольку праздничные 4 и 5 января приходятся на выходные дни, то их решено перенести на 4 и 5 ма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вомайские каникулы продлятся с 1 по 5 мая, а по случаю Дня Победы выходные растянутся еще на три дня — с 9 по 11 мая.

Трехдневные выходные такж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День защитника Отечества — 22-24 февраля,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женскому дню — 7-9 марта и на День России — 12-14 июня.

Один выходной в середине недели граждане получат 4 ноября,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сообщает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문예콩쿠르 3위

우수상 수상자 림복희 저자 소개

저는 1951년에 사흐초르스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보 시비르스크 화학 공학 전문학교 화학분석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와서 알코올 공장에서 화학자로 일했습니다. 현재는 연금 수급자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어디일까요?

림복희

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건가요? 엄마의 우유를 빨면서 처음으로 듣는 언어부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태어난 곳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지만 러시아(소련)에서 태어났습니다. 6학년까지 조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선 학교가 없어지고 학생들을 러시아 학교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다 러시아말로 하게 되니 아주 힘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언젠가 남조선에 가게 될 거라고 믿어서 소련국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권을 받을 때가 되자 우리는 부모님을 따라 국적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련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아주 불편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도시로 허가 없이 가지 못했으니깐요. 마음대로 공부하러 가고 싶은 도시도 허가 없이는 가지 못했습니다. 허가로는 도시 다섯 군데만 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다 소련 여권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소련연방최고 회의에 수십 번씩 청원편지를 쓰고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받은 소련국적인데 이제는 모두 다 버리고 한국으로 나가려고 하네요. '물고기는 더 깊은 곳을 찾지만 사람은 더 좋은 곳을 찾는다.'는 러시아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사할린 2세는 러시아(소련)에서 태어나 당시에 불편한 삶을 살았고 긴 인생을 사할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러시아는 두 번째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말이 더 익숙하고 러시아 문화, 문학, 예술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가 신경이 쓰이는가요? 피가 땀기는 건가요? 우리부모님의 고향이라서 그런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인생에 대한 불만, 아픔, 친척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어른들은 자나 깨나 어떻게 고향에 돌아갈지 고민만 하셨습니다. 동네 어른들끼리도 만나면 추억에 빠져서 옛날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조선에 남은 부모님, 형제의 소식을 모르니 답답해서 밤마다 라디오 방송을 조용히 들으면서 '우연히라도 친척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우리 어머니를 오빠들이 찾는다는 방송을 들었다

고 해서 어머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고 얼마나 애타게 슬퍼하셨는지요. 그 이후로 더 열심히 라디오를 들었지만,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계신 박노학 씨란 어르신한테 편지를 보내 조선에 전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후에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 땅에 못 가보시고, 친척들도 못 만나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는 왜 이리도 슬플까요? 우리 부모님이 겪은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요? 항상 그리워하시던 고향에 못 가셨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2세는 부모님의 고통의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가버리면 다 잊혀질까요? 3-4세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겠지만 우리처럼 부모님의 슬픔, 아픔, 외로움, 안타까움, 그리움을 옆에서 지켜보고 느끼지 않았잖습니까.

1세 어르신들이 영주 귀국하실 때 그들이 드디어 한국에 가시게 돼서 모두들 기뻐하셨죠. 러시아에서 부족한 연금을 받으면서 불편하게 사시다가 한국에서 비교도 못할 정도로 좋은 집에서 충분한 보조금으로 잘 사시게 됐지요. 특히 그리워하시던 고향에 가셨으니원이 없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또 생이별이 만들어졌잖아요. 자식들을 사할린에 놔두고 가서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도저히 자식들을 두고 못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제 또, 인천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사망하셨답니다.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지만 왜 이런 소식을 들으면 불안한가요... 건강이 괜찮을 때는 자식들, 손자들 만나러 일 년에 한 번씩 다녀가셨는데 점점 연세가 더 들고 건강이 나빠져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지요. 부모님을 뵈러 가는 자식들도 있지만 못 가는 분들도 있으니... 노인들은 자녀들과 작별인사도 못 하시고 외롭게, 그렇게 떠나가십니다.

누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는지, 누굴 원망해야 하는지... 제 잘못이 없는 데도 외롭게 돌아가시는 노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네벨스크, '새고려신문의 70년사'에 대한 전시회 개최



지난 12일(금) 네벨스크 역사향토박물관(관장 이완 치르코브)에서 <새고려신문 70주년/우리들에 대하여>전시회가 열렸다. 지난 6월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주미술 박물관에 열렸던 이 전시회의 일부 전시물들이 네벨스크에서 2차로 전시되었다.

네벨스크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전시회 개막식에는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야 사장, 주미술박물관 하이올가, 극동지역 예술부 총괄 전문가, 김남중 한국 동화작가 등이 참가했다.

배 워토리야 사장은 한민족지에 관심을 가진 데 대해 감사하다며 간단히 신문의 역사를 얘기했다. 하이올가는 자세하게 전시품들을 소개하면서 신문사의 역사를 통해 사할린, 러시아 역사 속으로 흘러들어간 한인의 역사를 얘기했다. 김남중 작가는 네벨스크 박물관과 도서관에 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신의 책을 선사했다.

전시회는 8월 20일까지 진행될 계획이고 이후 홈스크로 옮겨 3차 전시회를 갖는다.

(본사 기자)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환송식이 9월 21일에 열릴 예정

한국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올해 제7차 유골봉환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 사업으로 행안부 대표단(단장: 과거사 관련업무지원단 강제동원희생자유해봉환과 황동준 과장)이 금년에 3번째 사할린을 다녀갔다.

이번에 황동준 과장을 동반한 일행은 "공식 인사와 관계자들과의 만남보다는 올해14-15위를 봉환하기 위해 사할린 동포희생자 현지 공동묘지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며 별초를 하고 과일과 포를 챙겨 참배까지 했다. 그리고 묘지에 태극기도 걸어놓고 9월에 모국으로 모신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은 한글과 러시아어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해 지난 13일(토) 본사 사무실을 찾아온 황동준 과장과 행안부 과견팀이 전했다.

지난 9일 사할린에 도착한 팀은 14일 귀국하기 전까지 그동안 체호브마을, 네벨스크, 돌린스크구역(돌린스크, 우글레사위드스크, 비코브, 소스놉카), 포로나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구역(홈스크, 빠찌레치예마을) 소재의 공동묘지를 찾아다녔다.

황동준 과장은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 이에 대한 공식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협정 초안은 올 7월 말까지 모스크바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제7차 사할린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추도 및 유골 환송식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9월 21일 개최하고, 23일은 한국에서 안치할 예정이라고 행안부 측에서 전했다.

한국 행안부의 한인묘지조사 및 유골 봉환 사업은 사할린에서 주한



▲안내판이 부착된 봉환대상 한인묘지

인회(회장 김홍지)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행안부 측은 사할린한인 단체와 사할린 동포가 아니었으면 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해나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표명했다.

행안부의 위탁을 받고 내년엔 추가 한인묘지조사 사업을 하게 된 기관 대표팀은 지난 11일 사할린에 도착해 한인들의 묘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답사를 시작했다. 이 팀은 우글레고르스크,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티몹스코에 자역을 찾아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이 어려운 사전답사 일정을 김홍지 주 한인노인회 회장이 수반하고 있다. 대표단은 25일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순신 기자)

(사진: 행안부 과거사 관련업무 지원단에서 제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ГУ провели лекции для начинающих филологов

12 ию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перв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провели ознакомительные мини-лекции, на которых рассказали о преимуществах профессии учител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В этом году университету исполняется 70 лет и, как известно, его основу составило историко-филологиче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знак этого событ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афедры профессор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доценты Наталья Зиновьева и Екатерина Слепцова представили три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дисциплины: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журналистику и лингвистику. На лекциях можно было услышать фрагменты занятий,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доктор и кандидаты наук островного вуза для студентов. Также можно было узнать о функциях языка в маркетинге – сторителлинге (искусстве донес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с помощью текстов) и фактчекинге (проверке фактов).

Доцент кафедры Екатерина Слепцова рассказала о преимуществе профессии филолог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о научных тенденциях, связанных с языком. «В приоритете для современного человека, – говорит Екатерина Слепцова, – может стоять получение профессии учител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Словесник – это тот педагог, который несёт знания в массы для владения наш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языком. Мы иногда настолько естественно владеем языком, что даже не задумываемся о том, насколько это важно для человека – думать и общаться на своем родном языке».

Говорил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о том, что в основе изучения любого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должно лежать хорошее знание своей собственной языковой культуры. Закрепленность языковых навыков происходит через знакомство с литературой и умением сочинять собственные текст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еследовать разные цели (от информативной до рекламной, побуждающей к покупке каких-то вещей или услуг).

Своими первыми научными опытами поделились и недавние выпускники кафедры: магистры филологии Яна Коротаева и Ольга Меркулова. В сообщении Яны Коротаевой, продолжающей обучение в аспирантуре, рассказывалось о важности постановки звуков в речи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А Ольга Меркулова удивила тем, что 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интерес к математике подкрепляется теперь и филологическим знанием. Например, точка в геометрии – это граница отрезка линии, а в лингвистике – знак препинания, отделяющий одно высказывание от другого. В науках о величинах, количествах и пространствах, могут быть учтены и разные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В основе филологии, – подвела итоги встречи профессор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 лежат способы формирования мировоззрения, которое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успешного овладения любой профессией 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своего круга интересов, знаний, стремлений».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ам, абитуриентам, их родителям и всем тем,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гуманитарными науками. В будущем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ГУ продолжат знакомить всех желающих с профессией, направленной в будущее.

Александра Федосова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Конкурс эссе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зер конкурса (лауреат премии 3-ей степени)

Поездка в Корею

Пак Александр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номере № 25, 26, 27)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одноэтажны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здани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центре комплекса, в которых Саша побывал лишь однажды, когда делали замечания подросткам за неподобающее поведение. Сахалинцы показали себя не с самой лучшей стороны, наоборот,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ебя в качестве проблемных и невоспитанных детей. Спустя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илетий, старики поняли: какое поколение они воспитали.

Саша вновь полюбовался белизной чистого холла, плавными очертаниями закругленной улицы и по блестящей черноватой дороге, сворачивая возле магазинов Ансана, слегка сутулясь, направился к «Настинной квартире». Легкое шуршание, облегченно вздохнув открылись автоматические двери. Шагнув в лифт и нажал на кнопку - 4. Дверь квартиры открыла бабушка Соня: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брат Насти. Пришел навестить её, - слегка смущаясь проговорил Саша.

-Вот оно что, ты давай, входи, Настя сейчас занята, моется, - сказала бабушка Соня, пропуская молодого гостя и отмечая его худобу.

Квартира оказалась такой же, как у бабушки Ани: гостиная, совмещенная с кухней, спальня, комната для гостей или же спальня для второго жилья и балкон. В зале, вместо штор, были жалюзи светлого-голубого оттенка, а балкон был переоборудован под маленький кабинет и не было зеленого стекла, дарившего необычное утреннее освещение. Также, после внимательного просмотра, можно было заметить небольшие различия в планировке, но, в целом, ощущение похожести оставалось прежним. Саша посидел немного в гостиной, затем отправился в кабинет мужа бабушки Сони, переводчика по профессии, откуда открывался отличный вид на двор: привязанные велосипеды, молодые саженцы деревьев, стоящие по всему периметру, кольцевая дорога с ответвлением, сады возле домов. Поначалу Саша рассматривал кабинет, но вскоре это ему наскучило, но скука не успела полностью заполнить сознание - на балкон вышла сестра.

-Ну что, как тебе в Корее? Выспался, хорошо? - спросила Настя, вытирая мокрые волосы белым полотенцем. - Мне, кстати, пришлось поздно ложиться, но ванна, правда, тут хорошая. Когда будешь мыться, обрати внимание на цвет воды и перестань, наконец, изображать такое глупое лицо!

- Знаю, мне пока сложно привыкнуть. Не могу до сих пор поверить, что мы с тобой уже в Корее. Не верится прямо-таки. Настя, а что мы сегодня делать будем?

- Предлагаю сходить в Ансан, посмотреть на город, купить что-нибудь. Пойдем с бабушкой Соней, она согласна. Ну что, как думаешь? - спросила Настя.

- Мороженого хочется...

- Ну, Саша, ты чего такой невнимательный? - с некоторым раздражением сказала сестра. - Мороженого у нас нет, поэтому спустишься вниз и купи себе и мне.

- Как я его тебе куплю? Я по-корейски говорить не умею. Может быть ты сходишь, а?

- Ишь, ты какой! Не волнуйся, там все на самообслуживании. Выбираешь, то что нужно и несешь продавцу. Понятно?

- Ладно, давай сбегу

Убранство магазина было почти такое же, как в тех, что показывают в американских фильмах. Саша сначала охватил одним взглядом весь магазин, затем углубился в отдел для 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Требуется сделать очередной выбор и хочется что-нибудь поинтереснее. Сашино лицо растянулось в улыбке - явный признак удавшегося хулиганства; выбрал самое забавное.

-Ну что это такое, скажи мне на милость? - спросила Настя, разглядывая принесенное мороженое. А оно был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обычное, точнее его форма - фрагмент женской груди, на кончике которой располагался небольшой отросток в форме соска. Моро-

женое нельзя было откусывать, только посасывать через сосок,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немного подрезав его.

- Ух ты, а мороженое-то вкусное! - воскликнул Саша, уже продегустировав свою покупку. Я такое еще не пробовал.

- Ха, ха, ха! Ну хорошо, убедил, попробую - улыбаясь, сказал Настя. - А что? И вправду вкусное!

К полудню стало жарко, а на небе не было ни единого облачка - безупречная синева. Бабушка Аня была занята своими делами, Саша готовился к небольшой прогулке в город: натянул свои любимые шорты, футболку, слегка потрепал свою прическу и поверх всего водрузил кепку.

Встретиться условились у магазина. Саша пришел первым. Ждать он не любил, но так уж получалось, что его темперамент заставлял приходить раньше назначенного срока, поэтому занялся привычным делом - наблюдением. Как в ускоренной видеосъемке промелькнули незнакомые лица, вывески магазинов, написанные корейскими иероглифами, офисы позади магазинов, а также несколько игровых автоматов неподалеку. Рядом подметали асфальт зеленоватой метлой, стригли кусты и кроны деревьев, придавая им геометрические очертания, шли служащие, спешащие на работу.

- Ну, что же Саша, пошли, пожалуй! - сказала, подошедшая незаметно, Настя, взяв брата за руку.

Прогулка из района оказалась наполненной колоритным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необычайная ухоженность перемежалась отдельными островками мусора и грязи, а уже рядом с городом было что-то нечто похожее на свалку. Такая противоречивость наблюдалось повсюду.

В городе было шумно и неуютно. Для провинциала из России такая настроенность необычна, особенно удивительно было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рекламы. Её можно было встретить всюду и везде, даже на жилых домах, а про магазины даже и говорить не стоит. Людей было также очень много. Бабушка повела нас в торговый район города и мое зрение никак не могло совладать с таким количеством черных затылков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ериодически попадались затылки, окрашенные в самые дикие цвета радуги - зеленый и фиолетовый: движение молодых бунтарей существует везде. Домой вернулись с покупками: Саша с новыми ракетками для игры в бадминтон, сестра с джинсами светло-голубого оттенка с розой на бедре.

Уже домой, а не в деревню!

Стояла все еще хорошая погода, только как подстроить ее под себя - не знаем. Включили телевизор, девяносто девять каналов в Сашин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На пятидесяти пяти - бесконечные повторы и реклама, на остальных, кроме двух, скучно и неинтересно. Вернулись обратно к Насте и провели там остаток дня. Вечером, перед сном поиграли в бадминтон. Поначалу у Саши получалось не очень хорошо, скорее даже плохо, но соперник был понимающий, не делающий ненужных замечаний, и вскоре начались первые успехи. За заботу и понимание, за спасение от скуки, Саша часто доверял сестре свои мечты и, сказать честно, любил ее.

Заходящее солнце, пора идти домой. Осматриваю квартиру и отправляюсь, по указу бабушки, в ванную. Открыл кран, полилась вода непривычного светлого-голубого оттенка, заработал счетчик. Ванна просторная. можно растянуться в ней полностью, не загигая колен. Устраиваю небольшие потопы с задержкой дыхания, стираю «те» (грязь на теле), намыливаю волосы. Голова же занята другими делами, чувство присутствия, как всегда, утеряно.

Дальше следуют воспоминания, одно за другим: Саша за переводом рассказа Дойля, Саша и Настя прогуливаются по деревне, Саша насылует игровой автомат, Саша звонит по телефону, Саша... Классический метод Мнемозины.

Сахалин-Корея-Сахалин 200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звинился за невыполненное предвыборное обещание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инёс публичные извинения за то, что не сумел выполнить своё предвыборное обещание поднять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до 10 000 вон (8,48 долларов) в час в течение трёх лет после его избрания на пост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В письме, переданном через начальника управления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им Сан Чж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он искренне сожалеет по поводу того, что не выполнил обещание, данное народу.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комиссия по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плате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высить МРОТ в 2020 году на 2,9% до 8.590 вон. Это самый низкий рост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ь лет. На встрече со своими помощниками Мун Чжэ Ин сказал, что комиссия приняла трудное решение с учё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их условий и ситуации в сфере занятости. Вместе с тем,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дали понять, что решение комиссии не означает отказа от политики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за счёт увеличения доходов населения. Ким Сон Чжо заявил, что данная политика реализуется с помощью комплекса различных мер,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рабочим с низким заработком, укрепляя систему соци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сходя из условий внутри страны.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будет отражено в бюджете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и в налогов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е. Оппозиция требует отмены политики роста за счёт увеличения доходов, считая её нынешний формат неэффективным.

Генеральный совет ВТО обсудит японск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экспорт в РК

23-24 июля Генеральный совет Всемирной торг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бсудит на своём заседании в Женеве ограничения, введённые Японией на экспорт сырьевых материалов в РК. По дан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в повестку заседан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совета,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высшим директивным органом ВТО, входя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4 вопросов. Запрос на обсуждение японских экспорт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ранее направлен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в Совет по торговле товарами ВТО. Ранее в этом месяце Токио объявил об ограничении экспорта в РК трёх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используемых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индикаторных панелей. Сеул настаивает на том, что этот шаг политически мотивирован, поскольку Япония требует отмены решения Сеульского суда,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японские компании должны выплатить компенс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м рабочим, мобилизованным на их предприятия во врем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К расскажет об отрицательном влиянии действий япо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всю мировую торговлю и потребует отмены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экспорт.

Японские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нанесут ущерб экономике РК

Федерация корейских промышленников провела опрос среди 50 экспертов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компан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аботающих с Японией,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вопросам торговли об ограничении экспорта японского сырья 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94% респондентов отметили ре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ущерб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нанесён отечественным компаниям. 54% из них отмет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очень серьёз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70% считают, что меры Токио сохранятся и после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в Японии. 62% респондентов считают, что затягивание этой ситуации скажется ещё более негативно на отечественных деловых кругах, 12% указали, что ущерб получит и Япония.

В РК наблюдается ухудшение показателей экспорта и инвестиций

Несмотря на рост потребления, в РК наблюдается ухудшение показателей экспорта и инвестиций.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12 июл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тмечено ухудшение внешних факторов. В их числе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ь вокруг торгов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ША и Китая, замедление темпов рос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спад показателей на рынке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В мае в РК розничные продажи возобновили рост. Но инвестици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сократились на 8,2%, а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 на 0,3%. Экспорт в июне сократился на 13,5%, продолжая спад седьмой месяц подряд. Увели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составило лишь 0,7%. Между тем, в июне количество занятого населения выросло на 280 тыс. человек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за счёт сферы услуг.

В Кванчжу открылся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вод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12 июля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открылся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вод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проводимы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ей плавания. Чемпионат, в которо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7.266 спортсменов из 209 стран мира, продлится до 28 июля. Спортсмены разыграют 76 комплектов наград в шести дисциплинах: плавании, плавании на открытой воде, прыжках в воду, хай-дайвинге, водном поло и синхронном плавании. РК представляют 82 спортсмена. (RKI)

Жизнь Тен Тхе Сика

Отражение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Юлия Дин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номере № 27)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школы Виктор Павлович работал в корейской школе – одной из тех, которые совет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ткрыло для 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Нац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было необходимой мерой для адаптационного периода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Школы были закрыты в 1963 году, и до сих пор их закрытие вызывает у многих корейских стариков сожаление – именно с закрытием школ многие связывают утерю род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незнание молодежи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й и обычаев. Однако были и другие мнения, одного из которых и придерживался Тен Тхе Сик:

— Когда школы закрыли в 1963 году, я сто процентов «за» был... А почему – ученики школу закончили, а в институт не могут посту-

институт. Поэтому наши дети могли учиться, мои дети тоже все институт закончили. Я один работал на шахте – все мои восемь детей институт закончили. Это говорит о чем? Что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была хорошая! Если бы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продолжались, этого бы не было.

После работы в школе Виктор Павлович работал на шахте, закончив горный институт.

— Я в корейской школе до шестидесяти пятого года работал. Пятнадцать лет. В шахте тридцать один год работал –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не было, ну можно было, но зарплата у учителя маленькая была. Можно было оставаться, я не хотел. И переквалифицировался. Заочно учился. И корейцы, конечно, в это время – до шестидесятого года – жизнь корейцев очень низкая



Тен Тхе Сик, 2017 год



▲ 2004 год,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в Южной Корее (Тен Тхе Сик в центре)

пить. До 60-х годов корейцы, которые окончили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 один, два, ну самое большое пять процентов могли в институт поступать. Им даже послабление делали – они не сочинение на экзамене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писали, как все, а изложение. И то только 5 процентов поступало. Сами учителя были не подготовлены.

Я сам работал учителем, но я в японской школе учился – знания были. Поэтому я смог и педучилище закончить, а остальные все были заочники, хорошие знания не могли давать. Они науки вообще не знали – ни историю, ни физику, ни математику, языку только учили. А после закрытия корейской школы все дети перешли в русскую, и с 70-х годов уже могли поступать в

была.

Потом, что хорошо, где-то с пятидесяти третьего года начали выборочно принимать в граждан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сли не гражданин – надбавок не дают, отпускные мизерные, переезды были запряжены и прочее. Поэтому я в 58-м году гражданство взял. И вот, сейчас об этом молчат, и молодежь ничего не знает, ка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ыл после войны отстроен – мы все участвовал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займе с 46 по 58 годы, и мы все по нему платили...

Выйдя на пенсию, Виктор Павлович занялся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ой. Вопрос о многих проблема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давал ему покоя. В 2002 году, совместно с Со Дин Гиrom, выпустил сборник доку-

ментов по истории «повторной вербовки» на корейском, русском и японском языках, неоднократно писал статьи в сахалинские газеты. Занимается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ой. Виктор Павлович до сих пор, несмотря на солидный возраст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ему исполнится 90 лет. — Сахалин он покидать не хочет.

— Я для себя Корею считаю родиной. Почему? Я там родился, у меня детство там прошло. После войны до 50-го года я ничего не знал. Это государство, это подданство – ничего не знал. Когда уже нас лиц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делали, тогда понял, что государство – эт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И долго колебался – принять, не принять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Ну, думал в Корею поеду,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я хорошо владел и знал иероглифы – начальный фундамент есть, легко учиться. И думал – в Корею поеду, что-нибудь поеду! И жизнь совсем другая... дети появляются. Не о себе думаешь – о детях думаешь. Учатся, работают, карьеру делают... что я могу им про Корею сказать? Я этот вопрос вообще больше не поднимаю: «Где родина?».

Это не вышло. Но, что я совсем здесь останусь, никогда даже в уме не думал. Когда-нибудь поеду! И жизнь совсем другая... дети появляются. Не о себе думаешь – о детях думаешь. Учатся, работают, карьеру делают... что я могу им про Корею сказать? Я этот вопрос вообще больше не поднимаю: «Где родина?».

Я ведь все понимаю, не могу совсем в этом вопросе им указывать. А мне тогда что? И у меня, получается – где дети, там и родина.

«Сахалин P.S.» №13

РК – мировой лидер по скорости мобильного интернета

РК является мировым лидером по средней скорости мобильного интернета в рейтинге компании Ookla, управляющей сайтом Speedtest.net. В докладе компании,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14 июля, говорится, что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ма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76,74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Это самый высокий показатель среди 140 стра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К обошла Норвегию, которая занимала первое место с август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с показателем 67,93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Средняя мировая отметка 27,22 мегабит в секунду. Показатель РК в апреле вырос на 16%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а в мае на 20,2%.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запуском услуг связи пятого поколения 5G.

(KBS WORLD)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встречу с детским писателем Ким Нам Чжу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22 июля 2019 г. в 18.00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9 этаж).

2019년 7월 22일(월) 18.00 유즈노사할린 스크시 가가린호텔 회의실(9층)에서 김남중 동화작가(한국)와의 만남(문학의 밤)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최: 새고려신문사

후원: 가가린 호텔

Врачи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удут вести прием в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е

Проблему отсутствия на островах детского ортодонта подняли жители на встрече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Вопрос оперативно решился – уже 22 июля специалист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будет принимать юных пациентов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Пока в районе существует кадровый дефицит, врач будет прилетать каждые два месяца.

Курильчан волновали ветхие дома, грунтовые дороги,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ая реформа и другие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Во время общения с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дети войны» задали еще один транспортный вопрос. Сейчас билеты на судно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можно купить только онлайн, а пенсионерам это не всегда удобно. На встрече было найдено решение – агент, который сегодня занимается продажей билетов на самолет и поезд, сможет курильчанам и с вод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Также жители рассказали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ирса №5.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на встрече, по этой проблеме уже есть техзада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почти в два раза удлинить и расширить пирс – до 200 и 37 метро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Это позволит расшири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ассажирских и грузовых перевозок.

Большой круг вопросов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касался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Уже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шести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на Кунашире и Шикотане – квартиры там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96 семей.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чнут возводить еще 12 домов: 2 –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5 – в Крабоводском, 5 – в Малокурильском.

Многие курильчане задали главе региона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о сферой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Чтобы преодолеть кадровый дефицит, в этом году в два раза увеличили подъемные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Так,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рачам выплачивают по 2,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 организовать «зеленый коридор»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ют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в областные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Курильчане пройдут процедуры вне очереди.

На встрече пенсионеры, которые страдают от сахарного диабета, пожаловались, что им перестали выдавать тест-полоски. Выяснилось, что льготникам нужно выписать рецепт в поликлинике. По нему в аптеке без проблем выдадут медицинские средства. Прямо из зала дома культуры жительниц Южно-Курильска проводили за рецептом и в аптеку. К концу встречи женщины вернулись с тест-полосками.

Курильчане также поделились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своими опасениями по поводу загряз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Ответы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тоже уже есть. Муниципалитет отвел земельный участок для мусороприемной станции, построить ее планируе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Также есть планы наладить безотходную переработку рыбы. Для этого закуплено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туковой муки.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или 40-летие нивхского алфавита

Его автор - основоположник нивх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лауре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емии России,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Владимир Санги. Созданный им проект алфавита был утвержден 29 июня 1979 года Советом Министров РСФСР. Тогда ж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издании букварей на амурском и восточно-сахалинском диалектах.

Сейча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ют 4377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 нивхов, уильта, эвенков, нанайцев. В этом году была восстановлена работа совета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который не собирался с 2016 года. На его повестку выносятся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традиционн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этносов, в том числе сохранения и развития самобытной культуры.

40-летие создания нивхского алфавита для двух основных диалект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и амурского) отмечается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год языков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знаменательной дате, состоялось в центре досуга поселка Ноглики.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яли жители Ногликского, Тымовского и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Виновник торжества – Владимир Санги –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общался с присутствующими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 К большому сожалению, на нивхском сегодня мало кто говорит. Но гарантом того, что язык сможет жить, является нивхский алфавит,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Санги, который завершил с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лиричной песней.

По словам заместител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я Будкина, этот праздник объединяет весь нивхский народ.

–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ивхский алфавит имеет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большую историю, он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охранить язык целого народа, а значит и его самобытность. Благодаря Владимиру Санги мы можем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истокам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ивхов. Наша задача – сохранить уникальный народ,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удкин.

Сегодня в области обучением родному языку занимаются пять учреждений. Нивхский преподается в трех из н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рассчитаны на разный возраст – от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етских садов, до учащихся старшей школы. На средства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закупается учебная литература: буквари, учебники, словар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книги, пособия. Кроме того, по задани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учителей, преподающих родной язык. В 2019 году на Сахалин прилет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Хабаров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Квалификацию повысили 6 островных педагогов.

Новый вертолет санавиации уже помог спасти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Летающая скорая помощь на базе Ми-8 поступила в распоряж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врачей 23 июня. Уж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вертолет отправился на первое санитарное задание.

Медицинский вертолет привлечен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Это часть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авиапарка Национальной службы санавиации в регионах. Базируется Ми-8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1 июля экстренная эвакуация понадобилась 70-летней жительнице Поронайска. Ранее женщину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ли в реанимацию местной больницы из-за проблем с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системой. На дальнейшее лечение ее решили направить в региональный сосудистый центр. Вертолету понадобилось чуть больше часа, чтобы долететь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места назначения.

– Пациент осматривается, оценивается его состояние, все возможные риски. И если показания позволяют, то оперативно отправляем челове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на спецмашине или вертолете, – сообщ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Поронайской ЦРБ Михаил Захаров.

В хвостовой части вертолета есть распашные «двери», пациента на носилках помещают в медицинский модуль. На борту установлено необходимое реанимацио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яет перевозить больных даже в крайне тяжелом состоянии. За жизненно важны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помогает следить прикроватный монитор.

Пациентку из Поронайска доставили из аэропорта д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судистого центра на спецавтомобиле. В распоряжении экстренной выездной службы сейчас три таких машины.

– С начала года мы эвакуировали при помощи авиации 150 пациентов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в основном, вертолетом. Раньше задействовали технику МЧС и частных авиакомпаний, но у них есть свои задачи. А этот санитарный вертолет в нашем полном распоряжении, готов в любой момент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выполнение очередного задания. Но мы продолжим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и с МЧС, так как вылеты иногда пересекаются, – сказа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ением выездной экстренной 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Семен Солопов.

На текущий момент в российские регионы поставлено более 60 машин с медицинским модулем. Служба уже приступила к выполнению задач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Московской, Ленинградской, Свердловской, Нов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ях, Республике Карелия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одним из первопроходцев.

Мультипрофильный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намерены откры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той осенью

Центр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бесплатн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граждан, планирующих открыть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на островах. «Мой бизнес»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по аналогии с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ми центрами «Мои документы».

Клиенты н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могут не выходя из офиса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все доступные бизнес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инансовые и нефинансовые услуги.

В перечне направлений работы центра – не только консультационная помощь, но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ыписок, справок, банковских гарантий, оформл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постановка на кадастровый учет и регистрация прав на недвижимое имущество, открытие счетов и расчетно-кассов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 Центр станет тем местом, где начинающ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или человек, только планирующий открыть свой бизне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может получить не просто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вопросу, а конкретную услугу, – подчеркну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Наша задача – сконцентрировать в одном месте полный перечень сервисов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чтобы в конечном итоге сделать ведение бизнеса на островах максимально комфортным.

Новая структура создан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ейчас под центр оборудуют помещение. Площадку разделят на зоны: МФЦ, центров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а и развития сельхозкооперации. Несколько универса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будут вести прием клиентов на входе, ориентируя их к профильным сотрудникам.

На базе «Моего бизнес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будут консультиров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 Сахалин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а, а также структур, связанных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региональных управлений Росреестра и Федераль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органов местной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кредит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Моего бизнеса» очень актуален для региона и потенциально необходим сахалинскому деловому сообществу.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 как начинающего, так и действующего – должна быть одна «точка входа»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едения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дею создания центра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и обществен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НО «Агентств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новых проектов» Евгений Филилеев. – Самое важное, что в этом центр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не просто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интересующим вопросам, но и готовые решения по ним: регистрацию юрлица, выписки по счетам, оформление заявок на выделение субсидий и получение их.

Идея созд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 не нова. Центры «Мой бизнес» уже функционируют во многих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ах, и хорошо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ебя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Одним из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явля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начали оформлять новую социальную выплату

Более 14 тысяч рублей ежемесячно могут получать родители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полутора до трех лет на первого или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если ему не хватило места в яслях.

С 1 июля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мощь начали предоставлять семьям, доход которых не превыша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житочный минимум в полтора раза. На каждого члена семьи, включая детей, должно приходиться не более 21 391 рубля. Так, семья из трех человек не должна получать больше 64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а из четырех – свыше 85 тысяч.

На эти цели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ыделено 88,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Размер пособия составляет 14 536 рублей – это величина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на детей в регионе за второй квартал прошлого года. Если в семье двое детей от полутора до трех лет, то выплата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на каждого. Пособие будут выплачивать до тех пор, пока малыш не получит место в яслях или пока ребенку не исполнится три год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вгения Бочарникова шесть дней назад стала мамой во второй раз. Первой дочке исполнился год и девять месяцев.

– Хотя места в яслях для нас не нашлось, пособие по уходу за ребенком платить прекратили. Сразу появилась дыра в семейном бюджете. Как только узнала, что выплата теперь действует до трех лет, сразу пришла в центр соцподдержки. Все-таки это существенная помощь, – поделилась молодая мама.

Для оформления пособия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справки о составе семьи и о доходах семьи за 12 месяцев, а также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совместное проживание с ребенком, его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и паспорта родителей. Кроме того, обязательным условием является наличие росси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у мамы, его мамы или папы.

Напомним,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с детьми стали одной из тем прямой лини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20 июня. В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пособие на малышей начнут выплачивать с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Но руковод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емится работать на опережение и уделяет матер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семей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 рождение первенц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размером 54 тысячи рублей.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для студенческих семей при появлении ребенка – более 57 тысяч рублей. А женщинам, родившим первенца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25 лет,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150 тысяч рублей. С 1 апреля обширный пакет мер поддержки пополнил бесплатный набор для ухода за новорожденным, который вручают при выписке из роддома всем женщинам –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достат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강제징용’ 사건도 한·일 관계 뇌관 될까

현재, 7년째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헌법소원 사건 심리
위헌 확인되면 손해배상 소송 가시화될 듯…외교문제 확산 가능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한·일 외교문제로 번진 가운데, 사할린 동포 헌법소원 사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헌법에서 정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난다면 또 한 차례 양국에서 과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한문형(86) 씨 등 사할린 동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2012년 11월 접수된 이 사건은 한 달 뒤 본안 심리를 시작했지만, 7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최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 돼 러시아 사할린에서 머물기 시작한 이들은 현재 4만 300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러시아와 대한민국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거주 중이다.

복수의 현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올해 초까지 상당 부분 평의가 진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이후 진척이 없었던 이 사건

지난 1~2월 외교부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올촌이 서증과 증거설명을 제출했다. 2~3월에는 한 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앤인 측에서 현재에 서면을 냈고 복사본이 외교부에 전달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했던 ‘5기 재판부’는 마지막 구성원인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4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끝내 선고는 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외교적 마찰이 생긴 배경을 고려해 현재가 선불리 선고를 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고 현재가 기약없이 선고를 미루기는 어렵다.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이 고령인 데다, 7년을 끌어온 만큼 사건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2011년 접수돼 마찬가지로 7년을 심리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경우 지난해 최종 결론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결정할 가능성

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2011년에도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식상 ‘무국적자’인 사할린 동포를 청구권 협정상의 ‘국민’으로 볼 수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사할린 동포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현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문제됐던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사례 처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후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입법으로 사할린 동포들을 구제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문제에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의무가 정부에 부과되고,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국내 정착을 위해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다.

(출처: 헤럴드경제)

월드옥타, 2019 CIS·유럽 경제인대회 키르기스스탄서 개막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하용화)가 주최하는 2019 CIS·유럽 경제인대회가 현지 시각 17일 오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막을 올렸다.

월드옥타 CIS·유럽 경제인대회는 지역 회원 간 단합과 네트워크 활성화는 물론 모국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자리로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월드옥타 하용화 회장, 오상택 비슈케트 지회장 외에 23개국 34개 지회 회원 120여 명이 참석했고, 외빈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채이배 의원, 김기선 의원, 금태섭 의원, 이용호 의원, 하태역 주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 김정태 한국경영혁신협회 회장, 김기수 키르기스스탄 한인회장, 김상묵 코트라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은 격려사에서 “지금 모국의 수출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모국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월드옥타 회원들이 힘을 모았듯이 모국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수출환경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월드옥타 7,000여 회원들이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모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대회장인 오상택 비슈케크 지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월드옥타 회원들이 키

르기스스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비즈니스 무대를 넓혀 나가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라며 “특히 만년설과 수많은 호수의 수자원을 비롯한 천혜의 자원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토대 위에서 매우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 제도를 운영하며 견실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젊은 인구가 많아 역동적이고 성장잠재력이 크다”며 “한국 정부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과 공동번영을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월드옥타와 KOTRA 공동주최로 대학연합(한국지역대학연합 및 수도권 협의회 소속 8개 대학) LINC+ 사업단 소속 산학협력 기업 등 국내 기업 40여 개 사가 참여하는 ‘한-키르기스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를 개최해 모국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또한 월드옥타는 지난 4월 출시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OKTA 비즈니스 APP’ 설명회를 통하여 e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월드옥타 지역경제인대회는 대륙별 회원 간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으며, 이외에도 현지기업 및 단체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월드옥타 지역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는 9월1일부터 3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2019년 아프리카·중동 경제인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제공)

사할린 동포 특별법 공청회 "정부가 끝까지 책임져야"

"외교부, 적극적으로 러시아 설득해야"

(1면의 계속)

이날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 회장, 오일환 소장, 이상희 보건복지부 노인정책 과장, 박전수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 과장, 이상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사무관 등 유가족,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으로 끌려간 신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다른 문제에 비해 한번도 사할린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상은 없었다"며 "외교부에 계속 부탁했지만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 저금 1억 8900만 엔이 일본 우정상에 보관됐다고 하지만 이것 하나 찾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일본에 사과·배상·보상을 받는 것은 나라가 해달라"고 부탁했다.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한 강제동원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오소장은 "사할린 한인 피해

자 문제는 여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자들"이라며 "이분들은 냉전이 끝난 90년대까지 사할린에 억류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버림 받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사각 지대에 놓였다"며 "일부 피해자만 돌아와 또 다른 이산가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한 사연의 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부가 없어서 피해를 당했던 국민들의 고통을 대변해주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진술인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외교부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먼저 이상일 외교부 사무관은 질의응답에서 사할린 한인 피해자 직계 가족들의 국내정착 문제에 대해 답하면서 "한러외교관계 관련해서도 이 부분들이 러시아 국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유의사에 맡긴다 해도 법제화를 한다면 러시아 측이 자국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려를 갖는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사할린 지역이 척박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국가적 정책으로 지역주민들 늘리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가법체제로 대비하는 것에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외교적 마찰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면 보탬이 되고 양국관계가 긴밀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러시아 정부가 반대할 것은 단순히 예측이지 않느냐"며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설득하려고 해야지 소극적 외교로 나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연방의회 연설 사례를 예를 들며 "당시 외교부에서 미국을 자극할지 모른다고 해서 반대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출처: 더 팩트)

동포청소년 701명 역사현장 탐방하며 모국 배운다

재외동포재단 중·고생 모국연수 17일부터 전국 11개 도시서 개최

‘2019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가 59개국(한국 포함) 1,076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2차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 701명과 국내 참가자 375명이 참가하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여수, 영천, 고양, 파주, 군산, 전주, 진안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그 동안 참가자가 적었던 재일동포 중·고생 67명이 참가한다.

— 1차 : 7.17(수)~23(화), 광주, 대구, 여수, 영천, 울산, 제주 (6박 7일)

— 2차 : 7.31(수)~8.6(화), 고양, 파주, 군산, 대전, 전주, 진안 (6박 7일)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다음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차세대 청소년들의 비

전과 네트워크 확보를 목적으로 역사현장 탐방과 모국의 도시·농어촌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7월 18일 오전10시(1차), 8월 1일 오전10시(2차) 전안 독립기념관에서 개회식 후 전국 12개 도시로 지역 체험을 한다. 또한, 임진각에서 평화통일 프로세스의 현장 분위기를 체험하며 라비돌리조트(경기도 화성)에서 폐회식을 갖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재)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가 재외동포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캠프의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 국내외 청소년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모국연수는 동포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국내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한민족 차세대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인제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사할린과 교류 활성화하도록

지난 6-9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 인제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이수경 원장이 사할린을 다녀갔다.

“학교가 국제적 역량을 사업으로 세계 각 대학에 교류나 협정 의식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학업도 계속하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자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원장이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사할린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하던 이수경 원장은 사할린 국립대 언어·역사·동양학대학 임엘비라 학장,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을 찾아 사할린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알아보고 교류 방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앞으로 인제대학교와 어떤 방법으로 교류하고, 활성화하고 또 한국어뿐 아니라 사할린에 있는

학생들 또 동포분들 자녀, 혹은 러시아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을지 더 고민하기로 했다.

이수경 원장에 따르면 현재 인제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450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어문화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이 약 140명이라고 한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이수경 원장은 사할린에서 한국어 교육방법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8년, 일본에서 6년, 홍콩에서 15년 한국어 교육과 관련 활동을 해왔다. 특히 홍콩에서 한국어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한국어 교육 센터 등을 개설하고 한국어 능력시험, 말하기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그 만큼 해외 한국어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다.



▲왼쪽부터 사할린 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과 인제대 한국어문화교육원 이수경 원장

인제대학교 본교는 김해에 소재하고 있다. 이곳에는 CIS(독립국가연합)국가들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또한 영주국한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이수경 원장은 러시아, 사할린에 대해 관

심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곳 교육기관들과 교류하여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여러 교류사업을 활성화시키자 계획하고 있다.

지난 8일(월) 저녁에는 인제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이 사

할린 한국교육원과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과 교류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인재의 효율적 양성에 기여하고자 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인력 교류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학연수 및 유학 지원을 약속했다.

앞으로 인제대학교는 사할린 국립대와의 협력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참고: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속의 사립 종합대학. 인제대학교는 1972년 3월 종합병원인 서울 백병원이 개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79년, 백낙조·백낙환이 인제의과대학을 개교했다. 1979년 6월 부산 백병원을 개원했다. 이후 1989년 상계백병원, 1999년 일산 백병원, 2010년 해운대 백병원을 개원해 의과대학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한편, 1988년 11월 지금의 인제대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배순신 기자)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БОЛЕЕ 100 ЗАКАЗОВ

Нашим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ам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ПОЧЕМУ С НАМИ УДОБНО?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Заказы запоминаются, их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ПОПРОБУЙТЕ

НА САЙТЕ eda.sakh.com
Десктопная версия
Мобильная версия

ИЩИТЕ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а.з. (з.у.п.) Бя В.И. и.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